군산시, 수산물 특화도시 도약 '채비'

소룡동 수산물처리시설 현대화…대형어선 위판도 가능 신선도 제고 · 안정적 판로 확보…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시가 수산물 처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수산 특화 도시로 비상할 채비를 갖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소룡동 소재 군산 시 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이 준공돼 본 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

이 시설은 국·시비 각각 27억원 등 총 사 업비 90억원이 투자돼 지상 2층에 연면적 3813㎡ 규모로 건립됐다.

이곳에는 동결・냉동・냉장 시설이 들어섰 고 냉동 수산물은 최대 46t, 냉장 수산물은 최대 4232t까지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 어선 위판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동창고 수용 능력 포화로 타지 역에서 위판했던 어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군산에서 잡히는 대량의 수산물 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이와 함께 공급 성어기 수급조절을 통해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수산 도시 명성을 되찾는 견인차 역할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선도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어가 소득 증대와 유통질서 확립 등 많은 부수 효과가 기대된다.

또 해망동에 위치한 노후한 수산물종합 센터가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은 지 오래돼 낡고 안전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총 125억원을 투 입해 이곳을 해양수산 복합공간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이성원 군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산업이 재도 약할 발판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신안군 천사대교 개통 효과

개통 100일만에 방문객 220만명 돌파…서남권 랜드마크 부상

신안군은 지난 4월 4일 천사대교 개통 이후 102일만에 신안을 찾은 방문객이 220만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와 암태면 신석 리를 잇는 천사대교는 개통과 함께 서남 권 랜드마크로 뜨고 있다.

지난 4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102 일 동안 천사대교를 오간 차량은 100만 9522대이며, 천사대교 개통 전과 비교해 압해읍 교통량은 306% 증가했다.

압해읍의 평일과 휴일 평균 교통량은 각각 8481대와 1만3140대로 개통 전 과 비교해 각각 272%와 340% 증가했

이처럼 천사대교를 오간 차량이 100만 대를 넘어서고, 관광객은 220만명에 달 할 정도로 신안이 국내관광 명소가 되면 서 숙박과 음식점 등도 특수를 누리는 등 주민 소득에 큰 보탬을 주고 있으며 덩달 아 인근 목포시 북항·하당까지 호황을 누 리고 있다.

군은 아름다운 해변과 섬이 즐비한 신 안으로 올 피서객들이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압해읍 소재지 우회도 로 건설, 국도2호선(읍소재지~송공)가 변 3차로, 암태 남강, 압해읍소재지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민박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섬의 아름 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자은 자연 휴 양림 휴양관도 단장한데 이어 복합리조 트, 호텔, 펜션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레 저타운 사업도 유치해 2022년 완공 목표 로 추진 중이며, 부족한 인프라 등을 지 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고유의 무 수한 자원을 문화적 경제적으로 활성화 시켜 세계적인 섬 관광의 메카가 되게 할 것"이라며 "군민이 잘 살고 청년이 돌아 오는 1004섬 신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익산시, 중앙동 문화예술 거리에 '청숲' 개관

청년 일자리·문화·소통 플랫폼 역할···정보·취업 지원

익산시가 청년들의 일자리·문화·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청숲' 〈사진〉을 개 관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숨쉬는 공간, 힐링과 쉼의 공 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의 의미를 담아 건 립한 청숲은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건

이곳은 청년의 일자리정보 제공・취업 연 계를 지원하는 상담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실, 세미나실, 예비 취·창업 청년들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구성 됐다.

청숲에서는 일자리 안내·상담, 취업 역 량 강화, 문화·소통·활동 프로그램이 운영

특히 구직 청년들에게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교육, 일자리 정보 등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하고 신속한 일자리 매칭 지원 활 동을 하게 된다.

청숲은 익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 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목적실과 세미나실은 온라인 대관 신 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청정순창 섬진강변 '유색 벼 논 그림' 눈길

순창 섬진강 상류 지역인 적성 괴정리에 조성한 대형 '유색 벼 논 그림' 〈사진〉이 완 성되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논에 그림을 그리 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현대미 술가의 도움을 받아 적성면 괴정리 1만 5000㎡(4500평)에 유색 벼 논 그림을 완 고 있다.

기 위해 '참 좋은 순창에서 웃어요'라는 문 진행됐다. 구를 적어 넣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섬진강 물줄기가 S 자 형태로 굽이치며 황금 들녘으로 감싸 안고 있는 구역이라 등산객 사이에 경관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채계산 송대봉에 오르면 섬진강의 멋진 풍경과 함께 논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림 이 완성되면서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

앞서 논 그림이 조성되기까지 그림 도 그림은 청정지역 순창을 나타내는 자연 안, 일반벼 식재, 측량과 기준좌표 표시, 스러운 경관과 농촌 지역의 평화로움을 그 그림이 들어갈 자리에 일반벼 솎아내기, 림에 담아냈다. 또 순창 이미지를 부각하 유색 벼 식재 순으로 다소 복잡한 과정이

지난달 초 20여 명이 동원돼 3일간 그림 적성 괴정리는 순창의 3대 명산인 채계 도안에 따라 손으로 모를 심는 고된 노력 양새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매주 지나면서



의 결과 논 그림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벼를 심은 당시에는 모 색이 선명해지면서 글씨와 그림이 제 모습 을 찾았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남원시, 피서철 유원지 쓰레기 종합관리 대책 마련

남원시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 아 피서객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 쓰레기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국립공원을 포함해 피서객이 몰 리는 하천과 계곡 등 자연 발생 유원지 27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합관리 대책 다.

시는 지리산 국립공원 등 주요 피서지 에 쓰레기 수거 차량 증회 운영과 쓰레기 처리 상황반, 청소기동반 등을 운영해 쓰

레기를 적기에 치울 계획이다.

또 주요 피서지에 분리수거대와 음식 물 수거통 등 쓰레기 수거 용품을 비치하 고 쓰레기 배출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피 서객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한

올바른 피서문화 조성을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등 각 종 현지 캠페인 진행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세얼굴

"꿈·희망 가득한 장성발전에 온 힘"

김종기 장성부군수

"옐로우시티 장성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근 제28대 장성 부군수로 취임한 김종기 부군수는 "부군수를 맡아 영광 스러우나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낀다" 며 "꿈과 희망이 가득한 옐로우시티 장 성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

획에 따라 잘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추진 과 실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력을 공고히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을 다 하 겠다"고 강조했다.

광양 출신인 김 부군수는 1986년 공직에 발을 딛어 전남도에서 F1 조직위원회 기획 행정팀장과 의회

사무처 총무담당, 정책기획관 기획담 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당 등을 역임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 픽 조직위원회 파견과 산림자원연구소 이어 김 부군수는 "군의 현안들이 계 장, 농업정책과장 등을 거치며 기획력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m²,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4500만원(3.3m²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

